

세상의 틀을 바꾸는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1-6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메여있는 울무, 각인, 빠져있는 틀 속에서 우리들이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2가지 문제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빠져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복음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가끔 들리는 가계 주인에게 필리핀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니까, 해외에 다니면서 비행기 타니까 부럽다고 한다. 돈이 많으셔서 자녀들과 여행을 다니는데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한다. 왜 못 타고 물어보니까 죽는 것이 두렵고, 자신 안에 지옥이 두렵다고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우리 인생은 결론 났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었다. 이런 운명, 사주, 팔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왜 우리는 복음만 증거해야 하는가. 성경의 주제가 이것이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고 미국, 유럽의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 영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희망은 한국교회 밖에 없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문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아는 청년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미쳤다. 그냥 미친 것과 귀신들린 것은 다르다. 제주도에서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부흥회가 있어서 가보면 그 분들은 말씀을 아주 잘 듣는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아는 친구가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하버드대학교까지 갔는데 몇 개월 만에 미쳐서 돌아왔다. 언니가 믿음이 좋아서 신학교에서 동생이 뒷자리에만 앉아있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강의하는 시간에는 영어로 받아쓰는데 이상하게 예배시간에는 사라진다고 한다. 예배에 좀 늦을 수 있지 않은가. 어쩌면 귀신같이 알고 늦게 온다고 한다. 예배가 안 되는 것이다. 어떤 다락방 현장에서는 복음증거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준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귀는 뚫어 놓으셨다. 눈은 감더라도 들린다. 어떤 사모님이 말씀하셨다. 눈 감고 졸다가 눈 뜨는데 5년 걸렸다고 하신다. 그러더라도 계속 교회 나오기를 바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영혼을 바꾼다.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살하기 싫은데도 귀신이 ‘죽어, 뛰어내려.’ 말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도 나중에는 ‘맞아.’로 바뀐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24시간 하기를 바란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24시 묵상하지 않고, 이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것이다. ‘봐라. 저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게 생겼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재미있는데 세상 교회는 재미없지 않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에 친구 만나서 한잔 하고, 세상지식이 얼마나 뛰어난데 교회에서는 했던 말 계속 하잖아. 별 거 아니잖아.’ 자꾸 들리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이다. 세상 말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다. 직장생활 할 때나 다른 것을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충성되게 듣는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을 들을 때면 뻘뻘이져서 듣지 못한다.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영적 상태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토요일에 전도하지 않은가.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내일은 교회 나올 거예요.’ 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한다. 쉬는 날에 교회 가려고 하니까 더 놀리는 것이다. 누구의 역사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이야기는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다. ‘네가 가난한 것과 부자라고 큰 소리치지만 네가 없고 헛belt는 것을 보

지 못한다.’ 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성공할수록 그 안에 흑암, 혼돈, 공허가 꼭 차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란다.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이 많다. 아는 친구도 생각이 너무 많다. 하루는 새벽 1시, 2시에 전화가 왔다. 그냥 자면 되는데 왜 잘 자는 사람 괴롭히냐며 생각을 끊으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끊어진다고 한다. 그냥 살면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남을 괴롭혀야지 조금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 남편이 힘든 것이다. 자신이 살려고 괴롭힌다. 입을 참지 못한다. 그 안에 말쑼은 없는데 쓸 데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는 바란다.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했다. “너는 참 좋겠다. 메시지를 귀에 꽂고 살아야 한다.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말씀 안 들어도 잘 사는데, 너는 말씀 안 들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24시간 꽂아야 해.” 오히려 축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다가 사명자, 전도자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오히려 축복이다.

4. 복음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기준과 사상을 새롭게 재창조 할 수 있다.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모든 지식과 철학, 문제들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온다. 어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숨는다. 창세기 3장에서는 남 탓을 한다.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저 뱀이.’ 잘못된 자신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기방어기제를 이야기한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막는 것이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정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의 영인 것이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영을 죽이고, 부부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어느 정도나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한다.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러나 말해보면 영적인 문제가 아주 많다. 쓸데없는 곳에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다. 나는 어렸을 적에 알았다. 우리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는데 복지를 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다. 와서는 몇 시간 동안 아주 말을 잘한다. 그러나 진짜 답을 알면 할 말이 많지 않다. 영적 문제인 것이다. 생각, 기준이 많다. 생각할 것도 없다. 아까 새가족 시간에 이 말을 했다. 어떤 분이 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분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봤다고 한다. 설명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 분이 머리가 너무 똑똑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말한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생각해보라. 나에게 안 맞는 어떤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어떤 문제가 와도 사단이 뒤로 넘어간다. 여러분에게 내 생각, 판단, 주장이 있으면 사단이 비웃는다. ‘너는 내 밥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약하네요. 나를 무시하는 건가요? 더 쉼 문제 주세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찌르린다. 이것은 방법이다. 모든 문제 끝난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로 봐야 한다. 오만가지 문제도 딱 한 가지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다. 여러분이 갈등, 문제 있는가. 가난한가, 힘들고 어려운가, 부모님에게, 직장에 문제가 있는가. 병들었는가, 죽게 되었는가. 모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온 것이다.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고 말하는데 딱 한 가지만 해결하셨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해결하신다.(웃음) 어쩌면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딱 한 가지만 해결하셨다.(웃음)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문제가 불신자와 같아서 는 되겠는가.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를 축원한다.

5.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모든 성도들이 한 평생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보다도 귀함을 믿기를 바란다. 한 생명을 영접시키는 것이 대기업 수천만 개 만드는 것보다 더 귀하다. 우주만물을 보라. 지구, 태양이 가만히 있는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있는 태양계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런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넓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하신 것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보장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 가장 본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분 이상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기를 바란다. 300명 이상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합숙훈련에서 노방 현장전도를 가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다.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 알아? 복

음 들어봤니?” 하니가 천국이 어디 있다고 묻는다. 그 중에 몇 명은 들으려고 한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어 야지 죄 해결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똑똑한 아이가 묻는다. “그럼 착한 사람은요?” 한다. 다른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이 친구가 착하니?” 물으니까 아니라고 한다. 질문한 아이보고 착하냐고 물어보니 제일 성격 안 좋다고 한다. 결국에는 모두 영접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고등학교 현장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다. 돌을 들고 ‘이 돌을 누가 만들었니? 세종대왕? 공자? 석가모니가 만들었니?’ 물어보면 아니라고 한다. 누가 만들었다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요.” 한다. 회한하다. 몇 번 경험했다. 그 아이들은 알고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란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한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된다. 힘들게 주일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러 앉아 있다. 다닐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나 생명 살려보라.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란다. 예배시간에 잠깐 졸릴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 보라. 일본의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항상 이혼한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일본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천 번 이상 전하니까 그 때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 그 때 부인도 치유되었다고 한다. 아마 싸우는 것이 1/10로 줄었을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 된 것이다. ‘예수 믿고 왜 저러나.’ 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 예수 믿어서 그 정도인 것이다.(웃음) 훌륭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상하다고 들을 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야.’ 하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는다.(웃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간단하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 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 다. 하나님을 떠나면 온갖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문제가 많다. 그러나 원래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많은 문제가 온 것이다. 예수 믿고 지금 당장 구원 받으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다. ‘목사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는데도 똑같은데요.’ 한다. 영적상태가 아직 49%밖에 안 돼서 그렇다. 시소를 탈 때, 한 쪽 무게가 50%가 넘으면 넘어가지 않는다. 아직 불신자 같아도 어느 순간 문제, 갈등이 와도 내가 거들어서 문제가 안 되는 그 때가 온다. 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교회에 오기를 바란다. 49%때 그만두지 말고, 예수 믿고도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헌신해야 하고 더 헌금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와 아무 관계없게 된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응답을 받는다. 그러다가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안 되면 후대를 통해서, 후대 3, 4대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란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원한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간단하게 1분으로도 할 수 있다. 길게 할 수도 있다. 어떤 분은 운명, 사주, 팔자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분도 있다. 어떤 분과 이야기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날짜에 연연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말하니까 자신도 날짜 잡아서 이사 왔다고 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운명, 날, 방향에 잡혀있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중학교 때, 비 오는 날에 이사를 하는데, 기다렸다가 이사하면 편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 시간에 해야 한다고 한다. 나중에는 그 사주를 믿어서 그랬던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이었다. 딱 봐도 문제가 같았다.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찾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안에 있다고 물어보니까 그 안에 어머니가 주신 부적이 있다고 한다. “부적 있는데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사니?” 아무리 비싼 부적이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을 거둬나케 할 수 있는 길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기를 바란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다. 머느리 될 사람을 아주 좋아하더니 어느 날 헤어지자고 했다. 알고보니 이 권사님이 사주를 보러 간 것이다. 그곳에서 이 여자와 결혼하면 아들이 단명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파혼시켰다.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쳤던 남자가 점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죽는다고 하니가 나중에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사단에 매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 사주, 팔자에서 완전 해방 받은 줄 믿기를 바란다. 아무 때나 이 사가도 된다. 사주, 팔자 필요 없다. 어느 날 재앙이 온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이러한 재앙과 문제 속에서도 해방시켜주실 줄을 믿는다.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계속 같이 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 없다. 주변에 아직도 위험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을 믿기를 바란다. 어떤 청년이 가위 놀려서 힘들다고 한다. 가위를 조금씩 놀리더니 어느 날은 불을 켜는데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불을 켜는데 계속 그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 그 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귀신이 보인다고 하니가 미쳤냐며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약을 먹으면 될 줄 알고 약을 먹었다. 잠을 못 자니까 직장에서도 계속 졸고 무기력한 것이다. 나중에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다. 가위 놀리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3분 구원의 길을 해보고자 한다. 이중에 새가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진짜 구원받았는지 고민해보라. 구원의 확인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한다. 불신자는 그런 고민도 안 한다.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걱정이 되는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웃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구나.’ 이정도 되어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것은 감기에 걸린 것이다.(웃음) 찌릿하면 신경통이라고 류목사님이 말씀하셨다.(웃음)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시기를 바란다.

3분 구원의 길을 따라해 보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 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후에 영접의 기도를 하게 된다. 만약 지금 영접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전달하셔서 생명 살리고 300명이상 영접하다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을 것이다. 몇백 명 중에 딱 한 사람 만나 그 사람이 세계 살리는 자다. 나도 과거에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다. 너무 안 되는데 오래 붙잡고 있는 게 문제이다. 류목사님은 말기고 새로운 현장으로 가신다. 진짜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맺는 그 제자. 물론 오래 시간 걸려서 사명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시간표를 보고 멀리 보고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전도캠프를 할 때는 복음을 전하며 썰렁하기를 바란다. 류목사님이 충격 받았던 것이 주유소에서 평신도가 전도를 해서 영접을 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영접하냐고 물었더니 ‘예비된 사람은 그냥 영접한다고 한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야냐고 했더니 ‘그래서 다 썰렁본다고 하더라.’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현장에서 루디아, 야손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 교단 안에 많은 제자를 보면서 외국인, TCK인데도 어떻게 저런 제자가 있을까. 필리핀 팔라완에서 전체의 문을 연 분이 아브넬 목사님이다. 그 분이 건축, 창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분이다. 월급이 10배 많았는데 예수 믿고 전도자하라고 하라니까 그 직업을 버리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팔라완 가서 모든 문을 연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서울, 경기지역, 세계까지 응답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세계 237나라 살리고 TCK까지 살릴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주신 것, CVDIP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에 우리 참사랑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서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전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직 예수 증거하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참 복음을 알 수 있는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를 살리고 많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청소년과 가정과 사회를 복음으로 이 세상의 옛 틀을 바꿀 수 있는 이 구원과 복음과 복음메시지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 다. 아멘.